

“나보다 어려운 이웃 도와요”

서울시 환경미화원 소쩍새마을에 성금 1400만원

폐품·재활용품 팔고 박봉 쪼개 마련

“희망 잃지않고 살아가는데 도움됐으면”

“깨끗한 정토세상 일구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요” 서울 25개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20명이 12월 23일 중증장애인인 모여 사는 소쩍새마을을 찾았다. 일년 동안 환경미화원 5000여 명이 재활용 및 폐품 등을 수집해 팔거나 박봉을 쪼개 3000원씩 모은 후원금 1천4백여 만원을 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 환경미화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

달받은 소쩍새마을 원장 현각스님은 “인정이 점점 메마르고 있는 요즘의 세대속에서 자기 살림도 힘든 환경미화원들이 먼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살행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일은 91년부터 소쩍새마을을 남모르게 도와던 은평구청 환경미화원 이명자 보살이 제안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 보살은 은평구청에 서 미망인으로 구성된 환경미화원

24명과 함께 어려운 이웃 돕기에 앞장서 일명 ‘빛자루 아줌마’로 통한다. 이 보살은 “비록 우리들이 남을 도울 정도로 넉넉하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모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환경미화원들의 보살행은 이미 20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82년부터 매년 수재의연금을 전달해 왔고, 92년부터는 충북 음성꽃동네를 방문, 본격적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후원금 1천만원과 트럭 2대분의 의류를 마련해 소쩍새마을을 찾았고 지금까지 음성꽃동네와



◇서울시 환경미화원 20여명이 12월23일 소쩍새마을 원장 현각스님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가평꽃동네, 소쩍새마을을 번갈아가며 돕고 있다. 이외에도 94년 8월에는 심각한 한해를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도왔고 95년에는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서 희생자에게 도움을 손길을 전했다. 이홍성 노조위원장장은 “어느순간

세상에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금을 모으게 됐다”며 “환경미화원들이 분명 사회적 약자지만 조합이 존속하는 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nia.com

전 인도 승려연합회 소속 스님들 주도 마하보디 사원서 反달라이라마 시위

“종교 명목으로 정치적 이득 취해” 주장

사원 운영권 문제로 불교도와 힌두교도 사이에 마찰을 빚어오던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이번에는 반(反) 달라이 라마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전인도 승려연합회 소속 스님들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시위에 참가한 스님들과 불교도들은 달라이 라마의 ‘정치적 활동’을 비난하며, 그가 인도를 발판으로 ‘종교의 이름을 빌려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마하보디 사원의 운영권을 불교도의 손에 돌려달라는 운동에 대한 티베트 불교측의 냉담한 반응에 대한 불쾌감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들은 이달중 있을 달라이 라마의 부다가야 방문을 반대하며 부다가야 지역 차원에서 이를 막지 않으면 단식 투쟁을 감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는 11일부터 깔라차크라를 주재하기 위하여 부다가야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시위는 티베트 불교와 인도

‘신불교(Neo-Buddhism)’의 불편한 관계라는 맥락에서 보고 있다. 인도의 달리프 천민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위 신불교 집단은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못내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티베트인들의 망명 초기에는 ‘같은 불자’라는 동지애적 감정을 갖기도 하였으나, 서로 융합되기 어려운 이질적인 교리체계와 민족적 상이성으로 결국 가시적인 교류는 전무한 상태로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티베트 망명정부의 입장에서는 인도 정부의 호의로 타국에서 망명정부를 꾸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득권 세력, 특히 힌두교 원리주의 인도 정부에 대해 저항적 색채를 강하게 띄는 인도 불교도를 지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따라서 인도 정부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도 불교도들과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이지은 통신원

경주시 문화재 안내판 4개 국어로 모두 교체

경주일원의 국문과 영문으로만 되어 있는 낡고 오래된 문화재 안내판이 4개국어의 새 안내판으로 모두 교체될 전망이다. 경주시는 지난해 월드컵 개최 이후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이 크게 늘

어남에 따라 국문과 영문으로만 표기된 기존 문화재 안내판은 모두 철거하고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가 모두 표시된 새 안내판을 설치키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교체될 안내판은 석굴암을 비롯 모두 259개의 지정문화재 안내판으로 경주시는 사업비 2억8천여만 원을 들여 내년 1월말까지 모두 교체한다. 박원구 기자

전통사찰 용추사 보수시급

대웅전 낡고 태풍피해 빚물스며

경남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전통사찰 용추사(주지 선해)의 대웅전이 노후된데다 지난 여름 태풍 ‘루사’로 대웅전에 빗물이 새는 등 붕괴위기를 맞고 있어 보수가 시급하다. 용추사는 재건축에 나서 전체 사업비 2억원중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 8천만원(국비 4천만, 도비 2천만, 군비 2천만원)은 확보했으나 1억 2천만을 마련할 길이 없어 재건축자

체가 무산위기를 맞고 있다. 용추사 주지 선해 스님은 “용추사에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4호인 ‘덕유산장수사 일주문’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가 보존돼 있어 재건축이 요구되고 있으나 짙 재정으로는 사업비를 마련할 길이 없다”면서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더많은 지원과 불자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강화 전등사 성보9건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

강화 전등사내 성보 9건이 한꺼번에 문화재로 지정됐다. 인천시는 시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등사 대웅보전 목조삼존불좌상, 법화경관 등 7건을 시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최근 이를 시보에 고시

했다. 대웅보전 후불탱(문화재자료 21호), 감실당 아미타불탱(문화재자료 22호) 등 2건은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 특히 시유형문화재 45호로 지정된 전등사 법화경관(104매)은 1544년 조성된 것으로 현존하는 법화경관 30점 가운데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것은 8점에 불과할 정도로 그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았다. 권형진 기자

대구에 4년제 불교대학 세운다

동화사, 임휴사 부지에...불교학등 3개과 개설 예정

대구불교대학이 창립 10주년 기념 식에서 4년제 정규대학 설립계획을 발표했다. 12월 23일,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구불교대학 10주년 기념 ‘대구불교인의 밤’ 행사에서 학장 지성스님은 교육부 인가를 받은 정규 4년제 대학을 대구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화사와 대구불교대학이 추진하

는 대학은 임휴사 소유 대구 달서구 상인동 760여평의 부지에 사회복지학, 불교학, 교육학 등 3학과를 개설하는 정규대학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불교대학 학장 지성스님은 “사회의 봉사활동도 전문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들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 불교계에서는 이런 전문가들을 배출해 낼 인재양성기관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임기내 정식 대학 인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학사 건립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대구불교대학은 지난 92년 대한불교조계종 대구경북팔공승가회 부설 대구경북불교대학으로 설립된 후 94년 동화사 부설단체로 등록되면서 본격적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지역의 대표적 불교교양대학이다. 박원구기자

“아름다운 천성산 습지 살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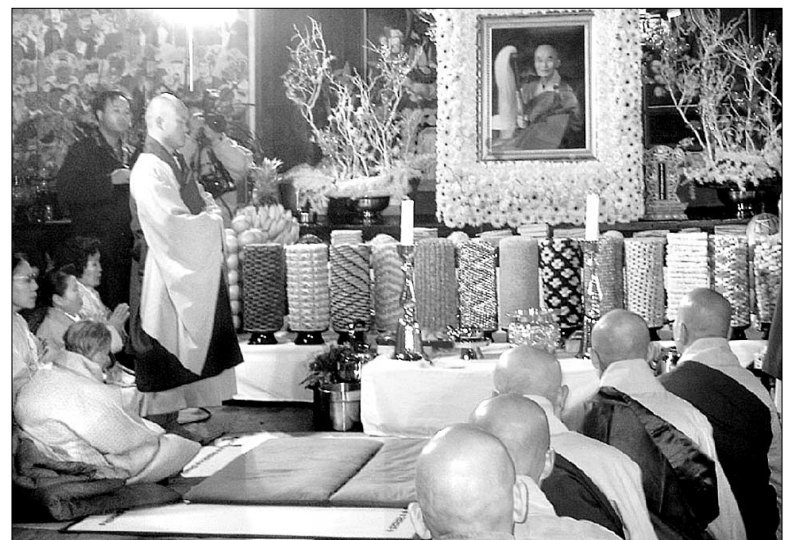
양산 효암고 학생·교사 사진전 열어

천성산 습지의 아름다움을 지키려는 노력에 고등학생들이 동참하고 나섰다. 양산 효암고등학교 김지은(국사담당) 교사와 이 학교 3학년 학생들은 “우리 나라 최고의 습지가 있는 산, 천성산이 경부고속철 관통으로 파괴되어서 안 된다”는 주제로 교내 사진전을 열어 학생들에게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열린 이 사진전에는 천성산에 서식하는 동식물 사진과 금정산, 천성

산을 지키려는 종교계와 시민들의 반대 운동 모습이 담긴 30여 점의 전시됐다. 또한 전시와 함께 자연을 지키려는 학생들의 마음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나갔다. 김지은 교사가 이끄는 3학년 학생 14명이 경부고속철 관통 반대 운동의 상징이 되어 있는 지울스님을 만난 것은 12월 초. 무제치늬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보기 위한 현장학습 안내자로 만난 지울스님을 통해 천성산을 오르게 된 것이 사진전을 열게 된 계기다. 천미희 기자

사명차문화 연구보고회 밀양시장등 500명 참석

사명차문화 연구보고회가 12월 23일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이상조 시장, 유관기관단체장, 사찰관계자, 임업후계자, 차동호인, 시민,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 문화작가 정동주씨는 사명대사의 스승 서산대사의 선다일미(禪茶一味)의 사상적 지평과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차문화를 소개하면서 사명차 문화복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재경기자



◇해암스님 열반1주기 추모법회가 12월 20일 1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해암당 성관대중사 열반 1주기 추모법회

조계종 전 종정 해암당 성관 대중사 열반 1주기를 추모하는 법회가 12월 20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열렸다.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과 원로의회 부의장 종산스님, 문도회장 성법스님 등 사부대중 1,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거불, 청혼, 삼배 등 전통 불교제례의식으로 진행됐다. 종정 법전스님은 법어에서 “스님

은 종단이 어려울 때 한 몸 아끼지 않고 몸소 실천해보이신 선지식이였다”면서 “추모재를 통해 사부대중들은 단순히 고인을 추모할 것이 아니라 무상함에 대해 발심하는 계기로 삼아 더욱 옹양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추모법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을 찾아 해암스님의 진신사리를 견진했다. 해암문도회는 2003년 상반기 중 원당암, 해암넷 홈페이지 제작과 함께 문집을 편찬 할 계획이다. 합천=박원구기자